



노로바이러스

1. 노로바이러스란?

■ 노로바이러스 [Norovirus infection]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다. 노로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, 전 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.

- ① 특징 : 60°C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.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음식이나 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고,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다.
- ② 감염경로 :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

- ③ 증상 : 평균 24~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갑자기 오심, 구토, 설사의 증상이 발생한 후 48~72시간 동안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된다. 소아에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.
두통, 발열,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. 발열이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한다.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~8회 정도 발생한다. 노로 바이러스 감염은 소장염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다.



- ④ 치료 : 항생제 치료는 하지 않으며,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진다.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진 수분을 채울 수 있다.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와 과일주스는 피해야 한다. 경도에서 중증도의 탈수는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하나, 심한 탈수는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하다.

2.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

 <p>손을 깨끗하게 씻어요!</p>	 <p>물을 꼭 끓여서 마세요!</p>	 <p>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요!</p>
 <p>식품은 충분히 익히고 조리구(칼, 냄비 등)는 깨끗이 세척과 소독을 해요!</p>	 <p>노로바이러스 발병시 조리금지!</p>	 <p>노로바이러스 회복 후에도 일주일간 음식물 조리금지! (회복 후 7일간 분변으로 계속 균배출)</p>

3. 노로바이러스 대처방법

구토물 발생 시 신속한 제거 및 주변 소독 실시 방법



	<p>(1) 장갑과 에이프런을 꼭 착용한다.</p>		<p>(4) 토사물이 있던 자리를 염소소독액 1000~5000ppm을 적신 천 등으로 덮어 소독액이 바닥에 스며들게 한다.</p>
	<p>(2) 토사물은 천이나 종이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닦아야 한다.</p>		<p>(5) 장갑을 벗어 통에 담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염소소독액으로 처리한 다음</p>
	<p>(3) 사용한 천이나 종이는 비닐 봉투에 넣고 1000~5000ppm 염소소독액을 부어 소독한다.</p>		<p>(6) 손을 깨끗이 씻는다.</p>

- 분비물 제거 후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,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에 행군다.
- 감염이 의심될 경우 화장실, 변기, 문손잡이 등을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.

[출처 : 1. 노로 바이러스 [Norovirus infection] (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, 서울대학교병원)
2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 포털
3.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]